

학부모신문

바로서는 학부모
우독서는 아이들

발행인: 오성숙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2-1(2층) 전화: 02-675-9068 02-634-6508 천리안 ID HAKBUMO (FAX: 634-4359) 청주 0431-52-9541 부산 051-247-1795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마창 0551-45-0341 대구 053-741-7366 여수 0662-62-6541 익산 0653-834-0347 울산 0522-92-8053/4 여천 0662-84-5116

교사·학부모·시민 공동선언 발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정착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지난 5월 14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스승의 날을 맞아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교육자치를 위한 교사·학부모·시민 공동선언'을 했다.

여기에는 참교육 학부모회

오성숙 회장,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참여연대 김중배 대표가 참석했다.

이수일 전교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김중배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경과보고와 취지설명, 정해숙 위원의 공동선언문 낭독과 오

성숙 회장의 향후 일정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 단체는 선언에서 냉전교육, 권위주의의 교육을 배격하고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표방한 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교사·학부모·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교육개혁을 실천할 것을 다

짐했다.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는 △냉소와 무사안일을 떨치고 학교개혁의 주체로 나선다 △춘치를 거부하며, 학교 비리의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삼가고 소중한 인격체로 대한다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으로 지도한다 △늘 연구하는 교사로 아이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힘쓴다.

학부모는 △우리 교육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에 앞장선다 △학교의 민주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쓴다 △학급학부모회를 활성화시켜 교사와 만남으로써 내 아이만을 위해 춘치를 건네지 않는 건강한 학부모 의식을 정립한다 △학교안의 교육비리에 눈감지 않으며 부당한 찬조금 징수 관행을 없애 나간다 △아이에게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 하지 않고 그들이 지닌 소질과 재능을 북돋울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단체는 △크고 작은 검은 돈 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학벌주의,

과열 입시교육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재정 GNP 5% 이상 확보,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철저한 공개와 교사·학부모·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각종 교육조례 제정,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과 참여를 통해 시민참여의 모범을 세운다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자주적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연대 협력한다.

세 단체는 앞으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13일 맑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공청회에 이어 5월 15일에는 명동성당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또 5월 23일에는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알고 참여합시다'라는 주제로 일일 학교를 열었다.

일일 학교는 송대헌 전교조 교권국장의 학교운영위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 설명과 참여방안에 관한 강의로 시작하여 참석한 교사, 학부모들의 사례 발표, 질문과 답변으로 마감되었다.

(본지 3면 참조)



▲ 향후 일정 발표하는 오성숙 본회 회장

부모가 함께 하는 학교교육

엄마, 선생님이 날 싫어하나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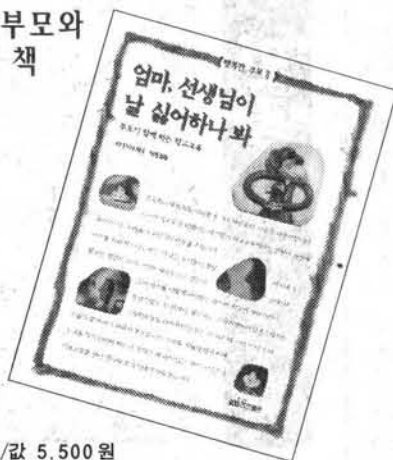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둔 초보학부모와 이미 다니고 있는 고참학부모를 위한 책

공립학교에 보낸 것이 잘한 일일까, 무슨 학원에 보내야 우리 아이가 뒤지지 않을까, 정말 봉투는 가져가지 않아도 되나, 명예교사는 어떤 것인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 학부모들의 질실한 문제를 실제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답했습니다.

웅진출판

영업부 747-1234

신국판/272쪽/값 5,500 원



지은이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엮은이 이덕희

학부모와 교사,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며 무엇이 왜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책

1. 일학년 엄마는 일학년
 - 자식키우기/오숙희
 - 첫아이, 첫 선생님, 첫 만남/강명신
2. 크는 것은 아이의 몫이다
 - 준비물과 숙제, 학과공부의 홀로서기/조봉호
 - 어떤 과외를 어떻게 시킬까/김명신
 - 크는 것은 아이의 몫이다/박혜란
3. 무엇이 좋은 교육인가
 - 아니, 이거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함숙희
 - 중요한 것은 '바이엘'이 아니다/김준미
 - 영어의 깃발이 아무리 요란하게 나부끼더라도/김길중
4. 이제 당신은 학교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 이제 당신은 학교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김신일
 - 모든 아이를 위한 '사회적 부모'가 되자/전종자
 - 내가 경험한 학교 참여운동/구명희
 - 보람 있었던 명예교사/이소영
 - 참교육과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모임/김영하
5. 21세기는 새로운 부모를 원한다
 - 더불어 살면서 크는 아이들/노미화
 - 모든 엄마는 '올백'을 원한다/강영혜
 - 괴롭히는 남자아이, 건디는 여자아이/김정희
 - 능력은 도처에서 발휘할 수 있다/최보문

논 설

진정한 교육개혁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년, 그동안 교육현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이들의 대학입시 고통을 덜어주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던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는 과연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

올해는 우리 교육의 인간화, 민주화를 외치며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를 선언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교사들이 외쳤던 참교육의 주장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을 만큼 오늘날 교육개혁의 절박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되어 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참교육 학부모회는 교육민주화 선언의 정신을 이어 받아 탄생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여민주시민연대와 함께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해 학부모, 교사, 시민이 나서자"고 주장하며 '학부모·교사·시민공동선언'을 지난 5월 14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교육개혁에 교사·학부모·시민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우리 교육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며 시작했던 교육개혁 작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참여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개혁안의 가장 핵심적 사안은 교육주체들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면 실시와 종합생활기록부제의 도입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성공적 출발은 이후 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공간을 넓히며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 가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사전준비가 미흡한 채 콩나물 교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시작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는 교사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 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학교현장에 민주화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위원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아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기존 육성회가 담당했던 찬조금 징수 관행이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으로 확산됨으로써 재력없는 학부모들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족한 학교재정의 조달창구가 되고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내의 국·영·수 과외가 중학교로까지 확산됨으로써 학교현장에 야기될 슬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GNP 대비 5%의 교육재정이 확보되어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교육현장에서 이제 교육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작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최근 정부에 의해 '노사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조만간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노동조합 허용문제가 현안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재정이라는 물질 자원 확보 못지않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가 교육개혁추진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사조직인 전교조의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앞 섹스 숍 등장

학교보건법 개정 필요성 절실



◇ 학교 앞에
난무하는 유해 업소

지난 4월경 '미세스 터'라는 섹스 숍이 익산시에 있는 이리 북일 초등학교 앞에 문을 열었다.

'미세스 터'는 성기구나 콘돔 등 성인용 물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전국에 4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으며 얼마 전 신촌의 대학가에 문을 열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곳이다.

한 학부모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리 북일 초등학교 어머니회에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어머니회에서는 이 문제를 알아 본 결과 현행법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학교 부근의 유해 업소를 규제하는 법으로 '학교보건법'이 있지만, 이 법은 유해 내용으로 규제하지 않고 유해 업종에 따라 규제하기 때문에 신종 업소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5월 28일 이 학교 어머니회는 학부모 총회를 열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업소

사장과 학부모 대표들이 면담을 가졌다.

사장은 한 달 동안 영업을 하고 권리금 정도만 회수하면 문을 닫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하교한 후인 7시 이후에 문을 열 것을 요구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더구나 북일 초등학교의 경우 주변이 술집이나 당구장 등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저녁 시간이면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변하고, 유리창은 깨어지고 학교 곳곳에는 깨진 술병과 쓰레기가 널려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본회 익산지부는 익산의 문화를 건전하게 이끌어 가고자 이 문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종 유해 업소가 나타날 때마다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는 현행 '학교보건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놀이 비디오 전집 "바위 가위 보"

전 시리즈 7개 각각 60분, 놀이지도 자료집 3권 포함

「잘 놀아야 잘 크다」 시리즈

전 3개 6만원

어린이 전래놀이 1(저학년용)

세계, 고구려 놀이, 절구, 삼팔선, 땅따먹기, 고누 외

어린이 전래놀이 2(고학년용)

전놀이, 비석치기, 장기, 땅따먹기, 율동놀이, 구슬치기 외

어린이 전래놀이 3(세시놀이)

세시, 율동, 연날리기, 공작수완, 풍요의 놀이 외

전래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 아이들의 바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야 놀자」 시리즈

전 2개 4만원

신나는 학교놀이 1(1학기용)

신나는 학교놀이 2(2학기용)

새학기 새학년 만들기, 소풍 놀이, 아영놀이, 책가방 없는 날, 학교 마무리 전지 등

각종 학교 행사와 학교 운영에 놀이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춤」 시리즈

전 2개 4만원

우리를 우리세상 1(민속춤)

궁의 장신, 장단, 민속, 민요와 춤, 판 무마기, 우리 춤에 친숙하게도 각 장단과 춤사위를 쉽고 재미있게 익힙니다. 체육교육에 꼭 활용하세요.

마음열고 춤추며 2(율동모임)

율동의 기초, 율동 창작, 신나는 율동모임

진숙한 동요나 민요와 노래에 맞추어 신나게 몸을 움직입니다. 율동 창작 과정을 통해 어떤 선생님이든 재미있게 율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판권 교사 단체 영남교육연구원/놀이연구회 '놀' / 중등놀이연구회 '가위바위보' / 중모임 '중추는 사랑' / 교사동맹회 '신명선지' / 인형극모임 '소꿉놀이' ■ 기획/제작/보급/판매 영남교육연구원(02-745-6197~8) (주) 태일영상(02-202-9454)

태일영상(주)

학부모 만평 이숙자



◆ 맑은 사회 만들기 공청회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

학교운영위원회 성패 올바른 참여에 달려 있어...

지난 5월 13일 종로성당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겨레 신문사 주최하에 '맑은 사회 만들기-교육 비리 추방 캠페인'의 하나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교육 비리 추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로 학교를 바꾸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먼저 송대헌 전교조 교권국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유형과 구조에 대해 발제했다. 송 국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원인으로 △학교장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즉, 각종 부교재의 채택을 둘러싼 비리들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추방의 대안으로 예·결산의 공개, 교무회의의 구성과 자율적인 활동 및 교사들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 학부모회의 활발한 활동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선 성남 금빛초등학교 교장은 '맑은 학교' 만들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교육 주체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하고 학

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주체성과 민주성, 다양성, 공개성, 전문성, 과학성 등을 들었다.

'맑은 학교'를 만들 합법적 장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선 운영위원들의 의식과 자질 문제 즉, 학부모 위원은 아이를 학교에

맡겨 놓은 입장에서, 교사위원은 근무 성적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 의식 때문에 문제들을 제대로 제기하고 심도있게 심의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을 들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지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의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며, 특히 학부모나 학부모 위원들의 경우 기존의 어머니회나 육성회에서 얼마나 탈피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교장은 △운영위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의식과 자질 향상 도모 △학교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민주적인 위원 선출 △교무회의나 학년, 학급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회의의 일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발제에 이어 이수호 서울시 교육위원은 조례 통과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재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명회 참교육 학부모회 학교참여위원장은 학급 학부모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김정자 참여연대 회원은 일본에서의 학교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한층 열기를 더했다.



▲ 학교운영위원회 바른 참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은주 기자)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이렇게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를 올바르게 알고 참여하자는 취지아래 지난 5월 23일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일일학교가 열렸다. 이날 강의 내용 중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소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 위원이라 한다.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한다. 지명 형식의 선출은 위법이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0~50% (실업계 30~40%)를 차지하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교원과 공무원도 자녀의 학교 학부모 위원이 될 수 있다. 또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다른 학교의 지역 위원이 될 수도 있다.

육성회를 대신하는 학부모회

많은 학부모들이 육성회를 대신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회는 목적, 구성, 회의 내용, 경제적 부담 등의 면에서 육성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우선 육성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 학교를 지원했으나 학부모회는 돈(학교운영지원비)을 징수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임원 중심으로 활동했던 육성회와는 달리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 대의원회 등을 구성하여 학부모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구성 방법에서도 육성회 임원은 위촉 형식이었으나 학부모회는 민주적인 선출을 통해 구성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부모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된다.

회의 내용면에서 보면 육성회는 회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학부모회는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 제정, 예·결산 보고 및 승인, 임원 선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안건, 학교 운영에 따른 학부모 경제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학부모회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만 모든 학부모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최초 회의 소집

서울의 경우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위원 선출 직후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최초 회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한다. (서울, 강원, 경북,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추진하거나 이 중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의 경우도 개정한다)

회의 소집 절차

학교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한다. 정기회의의 날짜는 학운위 규정에서 정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구나 재적위원 1/4(지역에 따라 1/3)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상세한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소집 공고를 한다. 회의 소집 때는 조례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가정통신문과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개최일, 안건 등을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알린다.

회의 진행 절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열릴 수 있다. 참석자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는 다음에 정한 날짜로 미루어진다.

회의 진행 때는 바른 회의 용어를 사용하고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회의 순서에 전회 회의록 승인 절차를 꼭 넣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학교장 집행 결과 보고를 듣는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결정할 수 있다.

회의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일반원칙, 즉 회의 진행 순서, 회의록 작성법, 각 정족수, 회기 계속(불계속)의 원칙, 표결의 원칙, 소위원회의의 구성과 활동 규정 등을 명시한다.

회의 안건은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 소집중에 제출된 안건은 심의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심의한다.

회의 발언권과 방청

회의장에서 발언권은 위원에게만 있다. (단 경기, 전남은 교감의 발언권 허용)

교사, 학부모는 회의장 뒤쪽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 금지 사항의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학부모 자생 조직과의 관계

자생 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자생 단체가 사업·재정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자생 단체들은 학부모회 산하 단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송주비 기자·정리)

◇ 기획 특집-NIE

살아있는 교과서

부모와 함께하는 신문활용 교육

일산에 사는 김성자씨(40)는 몇 년 전부터 획일적인 학교교육으로 인해 아이에게 부족한 학습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매일 오는 신문을 펴놓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설명해 주며 함께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문제나 문화재 등의 정보를 스크랩해 견학 자료로 쓰기도 하고 아이들 글쓰기 숙제에도 자료로 활용했다. 또 아침 자습시간에 배운 한자도 신문에서 복습시키니 효과가 좋았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해 흐지부지해 오던 중 신문 지면에 어느 날부터인가 NIE(신문을 활용한 교육)란이 신설되어 신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신문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 된 지금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하고 있다. 연수 이후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일선 학교에서도 신문을 활용한 학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빨리 이 NIE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NIE(Newspaper In Education)란?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 즉 NIE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신문을 학습에 활용하여 신문과 친숙하게 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NIE에 대하여 국제신문 발행인 협회는 ‘학교에 유용한 보조 교재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는 각종 정보가 넘쳐 나며 급변

하는 시대이므로 1년 주기의 낡고 한정된 정보를 담은 교과서로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최적의 교재가 교과서이기는 해도 최근 어린이들의 폭넓은 사고 증진을 위해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은 교과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인 것이다.

신문에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최신 정보가 담겨 있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산지식을 얻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사고력과 가치관, 풍부한 정서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또 새롭고 흥미로운 기사가 담긴 신문을 통해 어린이들은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문은 흔히 살아 있는 교과서로 일컬어지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교육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한다. 즉 독서 기술의 습득, 독서에 대한 흥미 증진, 현실에 대한 관심과 지식 증대, 작문력과 발표력 향상,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 능력 향상 등 기존의 교과서로는 얻기 힘든 여러 가지 능력이 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 교육의 좋은 교재

신문은 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정보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신문을 보고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교육 현장에도 다양한 지도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한 손쉽고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TV 등 영상 매체에 빠져 있어 읽고 쓰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고력도 약화되어 깊이

있는 학습을 회피하려 한다.

열린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나 뜻이 있는 일부 교사들이 여러 가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학년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처럼 신문과 가까워질 수 있다. 문자를 깨우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광고, 그

래프, 사진, 사설에 이르기까지 학년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교육 자료가 바로 신문인 셈이다. 또 국어, 사회교과는 물론이고, 수학, 과학, 더 나아가 음악, 미술 등의 예능 분야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봉호 기자〉

※ 적용사례

재미있는 신문 퍼즐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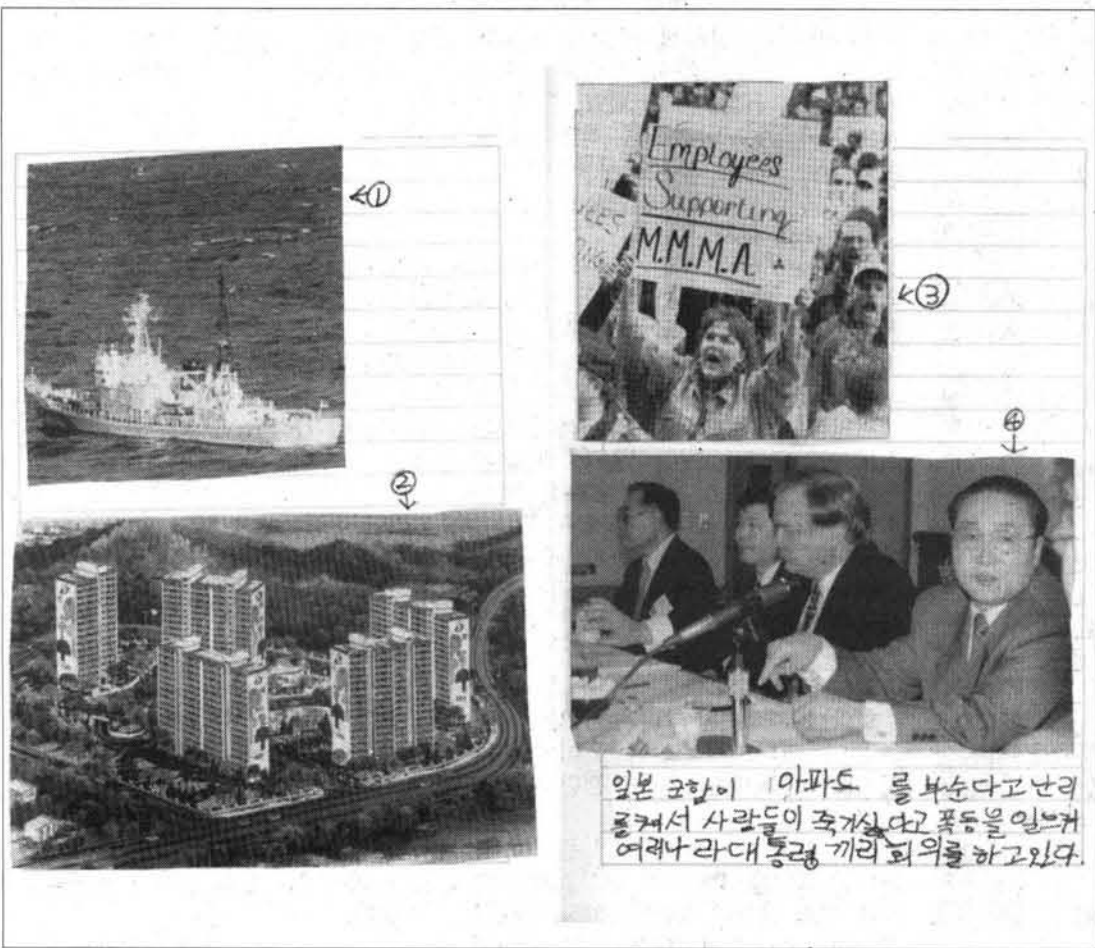
* 온 가족이 신문에서 글자를 찾아 가로, 세로로 재미있는 낱말을 만들어 가는 신문 퍼즐 놀이를 해 보세요.

국				식	인	상	이		유
	보	자	기		간		제	주	도
		전				장		유	
인		거	인		학	인			화
실	수		로		급		고		장
	학			해		추	적		품
		대	치	동			지	구	
공	사	중			어	장		세	도
	행		유	모		사		주	화
	수	정		집	행				지

☞ 신문을 활용한 교육의 예

- △신문에서 제일 큰 글자, 작은 글자, 큰 사진, 작은 사진 오려 붙이기 도시 이름, 나라 이름 찾아보기
- △신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 붙여 보기
- △신문에 나오는 가족, 친구 이름 찾아보기
-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된 낱말 찾아 붙여 보기
-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광고(사진, 그림, 낱말)에서 찾아보기
- △신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오려 붙이고 제일 보고 싶은 프로그램, 주인공 이름, 앞으로 주인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기
- △신문에 있는 사진 3~4장 오려 이어서 이야기로 꾸미기
- △신문에 있는 동(식)물 사진 찾아 동(식)물원 만들고 각 동(식)물의 특징 알아보기
- △신문의 사진 중 기쁘거나 슬픈 표정의 인물 찾아 그 이유 써 보기
- △신문 광고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물과 싫어하는 사물 찾아 분류해 보고 그 이유 써 보기
- △신문 만화의 말 주머니 지우고 새로운 말 주머니 만들어 전개해 보기
- △여러 인물 사진 오린 후 머리, 옷 등의 모양을 바꾸어 합성하여 누가 가장 멋지게 변장시켰는지 비교하기
- △신문에 나오는 시사용어나 약어 알아 적어 보기
- △낱말 찾아 끝말 이어가기와 낱말을 이용한 퍼즐 만들기
- △유명한 인물 찾아 인터뷰 해보기(인터뷰 설문 작성해 보기)
- △사설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및 주장 쓰기(제목 지우고 새로 붙이기, 내용 요약, 질문지 만들어 써 보기)

• 활용 사례집 <신문 살아 있는 교과서>(중앙일보사 간)



◆ 가족이 함께하는 성 이야기(11)

“우린 잘 알아요”

왜곡된 성 보는 대로 흡수하는 아이들



윤양헌(여성학자)

4)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

수녀님의 부탁으로 청소년들에게 성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 2, 3년 생들로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들과 툭 터놓고 대화 형식의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지요. “전 사람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사람은 다섯 단계가 있는데요, 첫단계는 손을 잡구요 두번째 단계는 키스를 하구요 세번째는 가슴에 손을 넣구요 네번째는 팬티에 손을 넣구요 다섯번째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동조한다는 듯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언어를 통해 그렇게 가르친 어른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을 통해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바로 성과 사랑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보이지 않는 각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배제된 육체적 감각만의 성행위를 사랑으로 동일시하도록 유도하는 각본, 그러한 사랑(성행위)을 남자가 주도하도록 가르치는 각본, 따라서 성 관계를 사랑의 목표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각본,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한낱 성적 대상물이나

피해자로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수녀님이 걱정스러워하는 이 아이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아이들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러한 각본을 곳곳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비판 능력을 키워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보는 대로 내면화시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곡된 자료들을 접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사랑과 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겠지요.

먼저 도처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사랑과 성에 관한 그림부터 정리해 봅시다.

대중매체가 개인의 오감을 사로잡는 흐름 속에서 텔레비전의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드라마나 코미디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의식 있는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오히려 여성을 보다 세련되게 비하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쉽게 받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만을 상승시켜 놓았을 뿐, 그 이면으로 더욱 사랑과 결혼에 굶주린 여성을 찬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과 함께 요즘 드라마들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 가운데 가장 뿌리깊은 고정관념, 남녀 모두가 인간다울 수 없는 고정관념이 바로 성과 사랑에 관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한창 고조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의식중에 흡수하고 있는 왜곡된 사랑의 각본들을 다음 호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지부탐방 - 마창지부

눈길 끄는 사랑의 교복 물려 입기

마창지부는 학부모회에서 가장 먼저 조직되고 활동을 시작한 곳이다. 지난 4월 이곳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마산민주청년회에 들렀다가 김영만 본회 고문의 추천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김은간씨가 그 주인공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밖에 안된 김은씨는 옛된 모습과는 달리 의욕이 넘쳤다.

올해 중심사업으로 6월 학교운영위원회 강연회와 학부모 상담실을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수영반과 농아복지원의 지원을 받아 수화교실도 계획중이다.

마창지부 활동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94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교복 물려 입기 운동’이다.

“일제시대의 잔재인 교복을 없애자는 것이 학부모회의 원칙이지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었기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교복 물려 입기 운동 본부장 임경란씨는 말했다.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이 남이 입던 옷을 입으려 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열린 교복장터에

는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 지금은 상시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란다.

교복 물려 입기 운동본부는 각 학교 안에 교복장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매년 졸업식과 입학식 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마창지부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지 못해 아쉽다며 학부모 상담실과 학교운영위원회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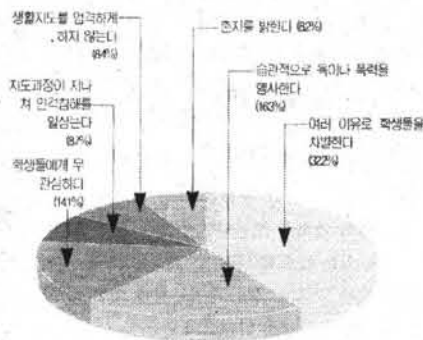
임경란씨에게 중앙에 바라는 점을 묻자 “중앙에서 열리는 강연회나 공청회 등 교육소식들이 지역에는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안타깝다. 강연회나 공청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지역으로 보내준다면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간사를 맞이한 마창지부의 활동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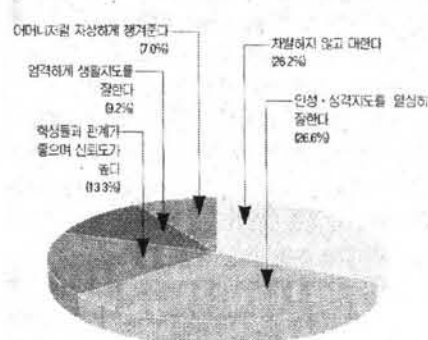
(김은주 기자)

◆ 통계로 봅시다 ◆

학부모가 싫어하는 선생님



학부모가 좋아하는 선생님



◆ 상담소 탐방(2) - 청소년 대화의 광장

친구 고민 풀어주는 ‘또래 상담교육’

1차 상담원 교육 수료생 10여명과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 있는 신당동으로 현장학습을 간 날은 지난 5월 14일이었다. 문화체육부 산하의 전문 상담기관인 ‘대화의 광장’은 전체 직원 중 상담직에 종사하는 숫자만 30여명이 넘고 이들 모두가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도 반수가 넘는다고 하니 전문 상담기관의 위상에 손색이 없어 보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범 상담실을 운영하여 1주일에 500~700건의 전화상담, 내방상담 등을 받는 것과 적성, 진로, 흥미, 성격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들 모두가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대화의 광장’의 모든 재정은 문제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러한 활동 외에 상담에 관한 연구, 상담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봉사자, 부모, 또래 상담자들을 위한 교육 연구, 연구지 및 소식지 발간 등 연구와 상담 실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끈 것 중의 하나가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선생님이나 부모와 함께 풀기보다는 자기 또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또래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바람직한 도움

을 주고 있지 못하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친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친구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 돌아보기, 친구 마음 이해하기, 친구문제 도와주기 등의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에서 이루어졌고 참가인원도 500여명이 훨씬 넘는다.

올해부터 시작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의 태도,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의 태도 등을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 10시~12시까지 ‘대화의 광장’ 강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전화상담실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말

하는 내용이 자동 녹음되도록 장치되어 있었고, 이를 가지고 상담원들끼리의 연수를 통해 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면접상담실은 소파가 놓여져 있어 내담자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고, 특히 내담자는 볼 수 없으나 상담자들이 다른 한쪽에서 내담자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One-Way-Mirror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치료실에는 여러 장난감과 놀이기구가 비치되어 있었다.

학부모 상담실을 준비하고 있는 본회로서는 이런 완벽한 시설에 부러운 마음 금할 길 없었으나 시종일관 초초초 룡한 눈빛으로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메모하는 우리 상담원들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 전화상담 :
(02) 730-2000, (02) 231-2000
서신상담 :
서울 성동우체국 사서함 9호 (133-071)

(남경아 상담원팀 차장)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22-1(2층)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5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일일 교사를 마치고

큰아이 담임 선생님께서 스승의 날 일일 교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중학교 2학년인 아이들과 한 시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해야 할지 그날부터 고민이 되었다.

"엄마, 중학교는요 초등학교와는 달라서 엄마가 하시는 수업 내용이 재미없으면 아이들이 막 딴 짓해서 수업 진행하려면 썰렁할 거예요."

딸아이는 엄마가 일일 교사하는 것이 걱정되는지 자기 반 분위기를 설명해주며 미리 각오를 하라고 한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딱딱한 수업보다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준 재미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의 <하느님의 눈물>을 읽고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 보기로 수업안을 만들었다.

시간에 맞춰 학교로 갔다. 학생들의 얼굴처럼 싱그럽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초여름으로 접어든 신록과 어울려 나도 덩달아 이십 몇 년의 세월 저쪽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교실 창문에 색도화지로 만들어 붙인 글귀가 스승의 날 분위기를 한층 더해 주었다.

"김○○샘 사랑해요!" "강구(선생님의 별명)는 영원한 우리들의 LOVE!" "I LOVE 강구!" 여학생들의 재기 넘치는 그림과 글들은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들게 했다.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하려고 들른 교무실엔 제자들이 갖다 놓은

꽃들이 꽂차 화사한 꽃밭 같았다. 제자들이 보낸 편지와 곱게 포장한 선물상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 반, 저 반에서 터뜨리는 폭죽 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발랄한 함성과 박수 소리. 저희들끼리 꾸며 놓은 축하 행사로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더 즐기는 것 같았다.

준비해 간 수업 교재로 옛 이야기를 해주며 한 시간 동안 아이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재미있게 들어주어서 참 고마웠다.

<하느님의 눈물>을 읽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열심히 적어 낸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뚜렷한 목소리를 잘 나타내는구나 싶어 아이들이 그렇게 대견스럽고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렸다.

단순히 지식을 심어주는 역할 외에도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까지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선생님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교직을 성직이라고도 하지 않던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애쓰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스승의 날이 되길 빌며, 학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본 날이었다.

한정기(부산 동래지역회 회원)

"저게 무슨 참외야?"

작년 시월, 몇 달 걸쳐 수리를 마친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다. 모두들 아이들 교육 문제를 제일 걱정하며 시골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오히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농촌으로 살림을 옮겼다.

어차피 도시에서도 학원이나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으면 또래 동무들이 없진 마찬가지니 농촌에서 개며 닭이며 염소며 토끼와 벗삼고, 들로 산으로 나들이 다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처음엔 막연했던 '시골에서의 아이 키우기'가 요즘은 많이 적응되었다.

밖에만 나갔다 하면 옷을 더럽혀 오는 통에 빨랫감도 많고 저녁이면 방걸레에 묻어 나는 흙 때문에 온 신경이 쓰였다.

작년엔 두 아이를 면에 있는 어린이 집에 보냈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녀석은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꽃도 꺾고 풀도 뜯고, 낙엽도 주워 오곤 했다.

하루는 두 녀석이 오다가 뱀을 만나 쪼그리고 앉아 구경하고 있더라고 동네 할머니가 전해 주셨다.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요즘은 농사철이 시작되어 모심기 하는 것도 보고 고추 심는 것도 보게 되지만 모가 자라 벼가 되고 쌀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겠는 모양이다.

며칠 전엔 장에서 고추, 오이, 참외, 수박, 토마토, 가지 모종을 사서 텃밭에 심었다.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에게 참외며 수박을 심었다고 했더니 "어디, 어디" 급한 소리를 하며 보여 달라고 재촉했다.

"저게 참외야, 저게 수박이야" 했더니 "에이, 아니잖아. 저게 무슨 참외야, 저게 무슨 수박이야" 한다.

참외가 자라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으니 '참외' 하면 그냥 과일 그 자체만 생각되는 모양이다.

올 한 해가 지나면 이 아이들은 참외 모종에서 참외를 찾지 않을 것이고 땀을 흘려 가꾸고 기다려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닌다. 5킬로 정도의 거리를 데려갔다 데려오는 일은 엄마 몫이다. 원아는 9명. 선생님까지 꼭 10명이 유치원에서 하루를 보낸다.

어쩌다 유치원 교실에 들어가 보면 9명의 아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고 난다.

난 이런 것들이 좋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많은 아이들은 '큰 학교'를 위해 도시로 통학하기도 하고 아예 유학을 가기도 한다. 그런 부모들은 한결같이 "시골 학교에선 아이들을 너무 놀게 한다"거나 도시 아이들보다 뒤떨어진 것을 염려한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이다.

우리의 입시 교육은 '큰 학교'는 점점 더 크게, '작은 학교'는 더 작아져 아예 없어지게 만들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그 특수성을 잘 살린 학교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하고, 작은 학교는 잘 살려 열린 교육의 표본을 만들어 가면 좋으련만.

신인순(충북 청원군 낭성면)

교육을 왜 시키는가

지난 5월 22일, 전성은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가졌다.

여천에 초행이래도 그리 크지 않은 YMCA 간판을 용케도 잘 찾아오셨다. 흰칠하게 큰 키와 흰색이 더 많아 보이는 머리카락. 책을 읽어서였는지 초면이었지만 친근감이 도는 분이였다.

행사 때마다 참석 인원이 적어 이번에도 역시 그러리라 우려했는데 참석 인원이 의외로 많아 무척 다행스러웠다.

드디어 강의 시작.

먼저 교육을 왜 시키는지 물으셨다. 정직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등등 여러 답변들이 있었다.

교육의 바른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교육인지부터 알아보자고 하셨다.

'반역사적인 것, 반도덕적인 것, 반종교적인 것'이 아니면 참된 교육이라고 했다.

교육은 피아노, 서도 등과 같이 정신 집중을 기르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 내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준을 세워 주는 능력을 가르칠 수 없다.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은 따라가는 것이다. 가족간에 기준이 합의되면 자율에 맡겨야 한다. 종교나 도덕에 강제성을 띠게 되면 광신도나 미치광이가 된다. 자율 상태에서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여 진행된 강의.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의 소란함, 단단히 묶어놓았던 자꾸만 떨어지는 플래카드.

오후의 나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이 자리를 지켜 주었다.

외부의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참교육의 소신을 지켜 가시는 분을 모처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번 강연회는 만족할 만 했다.

좁더 꼼꼼하게 행사 준비를 하지 못했음과 기거이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전성은 선생님 내외분께 넉넉한 대접을 못해 드려 영 마음이 무겁다.

강연 이후 낯선 얼굴들과 함께 의자를



▲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5월 5일 서울교대에서)

치우는 호탕함도 있었다. 언젠가는 거창으로 직접 가서 그곳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싶다.

서전희(여천지부 회원)

- 참교육 학부모회를 상징하는 심볼 마크를 모집합니다.
- 「열린 교육」은 필자 사정에 의해 쉽니다.
- 책소개는 8면으로 옮겨 실습니다.

학부모회 활동 모음

◇서울 강서남부지부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어린이날 행사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의 작은 마당이 5월 5일 양천공원에서 열렸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고 스산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쨍쨍해 축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순수 아마추어의 솜씨로 대자보다 불이 고 가락꽃도 팔고, 도서전도 벌이고 커피 파는 일일 마당(?)도 되고.

드문드문 찾아오는 회원님이 무척 반

가웠지만 그 수는 기대에 못 미쳐서 엉덩이 아프게 자리를 지키는 데 힘이 빠지기도 했다.

덕분에 소수 정예(?)의 자원 봉사 회원들은 피약별에서, 교대자도 없이 완벽한 하루 봉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지역단체와 연대하는 행사로, 준비도 미흡했고 장사(?)도 잘 안되었지만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치렀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서울 중서부지부

마음의 보석 찾아가는 아이들

5월 16일, 평소에 연극과 글쓰기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주고 있는 김지에 선생님을 모시고 ‘연극 지도,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주제로 월례강좌를 가졌다. 함께 가면도 만들며 생활 속에서 아동극을 지도해 볼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들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간단한 연극을 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풍부한 인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5월 18일부터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의 자아실현과 진로지도’가 진행 중에 있다.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더욱 풍성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여겨진다.

평소에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 가고, 표현력이 부족하여 안타깝게 여겨지던 우리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보석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신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서울 동북부지부

회원 여러분, 힘 좀 보태 주세요

‘한창 뜨는 지부’라는 말을 들은 지가 언젠가 싶게 임원 모두가 의기소침해 있다. 어린이날에 하루종일 평별에서 순대 팔고 홍보물 나누어주느라 아이들과 놀아주기는커녕 한 발자국도 못 떼고 하루를 보냈다. 감기다 몸살이다 후유증을 앓으면서 어렵게 마련한 연속 교육 강좌.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엄청난 출혈을 무릅쓰고 기획한 ‘어린이 독서

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실’들이 예상 밖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하지만 여기에 기가 꺾일 동북부지부가 아니지. 이제 욕심을 더 내어 아버지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강좌를 저녁 시간에 할 예정이다. 교육은 엄마들만의 몫은 아니니까.

우리 지부 회원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세요.

◇익산지부

다섯번째 생일잔치 열려

5월 14일 저녁놀이 어스름해질 무렵 새 사무실에 회원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사업으로 일관한 익산 학부모회가 어느덧 다섯번째 생일을 맞아 서울에서 특별히 와 주신 박경원 초대 지부장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가족 노래자랑을 벌였다.

가족마다 특색있는 장기 자랑이 나오고 활짝 핀 웃음 속에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부모회의 미래가 보이는 듯했다.

파전 파티만으로 사랑을 나누기엔 너무 부족해 우리의 발길은 원광대 대동제로 이어졌다.

6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도예교실이 준비중이며 4기 어린이 여름 캠프도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회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

◇대구지부

심신 수련장 계곡에서 야생초 강의

대구지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 앞산 심신 수련장 계곡에 모여 야생초를 둘러 보기로 했다.

산길로 접어들자 흰 제비꽃 군락지가 나타났다. 곳곳에서 보라색 제비꽃도 볼 수 있었다. 곧이어 별처럼 작은 꽃을 단 애기나리 군락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계곡의 돌 틈에 자리를 잡고, 왜 우리가 야생초를 사랑해야 하는지, 또 작은

꽃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야생초는 어떻게 채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영숙씨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는 준비한 김밥과 최정숙씨가 손수 썬을 뜯어 만들어 오신 썬떡을 먹으면서 썬덕썬덕, 웃음꽃도 만발했다. 아쉬워하며 내려오는 길, 이름 모를 좁쌀만한 얼굴의 꽃들. 이들은 어떤 정겨운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부산지부

‘땅치고 하늘 짚고 하나 되어 아호!’

5월 5일 부산 교대는 아이들만의 소인국이였다. 학부모, 교사, 언니, 오빠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놀이와 행사에 즐거워하는 아이들.

길놀이로 소인국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우리 꽃을 예쁜 화분에 담아 보여주니 아이들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고 수많은 연이 하늘에 두둥실!

과학 동산에선 신기하고 재미있는 실

험으로 미래를 보여주었고, 허기지게 했던 영산 줄다리기.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웃음소리와 풍물과 어우러져 정말 신나는 어린이 세상 이였다.

소고 하나씩 들고 소인국을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쉬움과 함께 내년엔 더욱 푸른 어린이날을 준비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지부

‘얼썬 좋다 우리들은’

‘얼썬 좋다 우리들은’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네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다. 지난 해까지와는 달리 지역내 여러 단체들이 주최 및 후원 단체로 참여해서 치러졌다. 행사 규모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는 놀이 동산, 과학 동산, 환경 동산, 통일 동산, 그림 동산과 유아 마당이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윈드 오케스트라의 관악 협주, 오후에는 모형비행기 날리기, 민족무예 경당 시범, 풍물 공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놀이로 이루어졌다.

특히 관악 협주와 어린이 합창단의 발표가 자칫 무력해지기 쉬운 점심시간에 이루어져 좋았다.

재정은 참가 어린이의 회비와 추진위원 티켓 판매, 스폰서로 충당하였다. 올해 남은 경비는 내년 어린이날 사업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치러진 어린이날 행사가 지역내의 다른 행사와는 차별성을 가진 행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몸도 쑥쑥, 마음도 쑥쑥 — 우리교육 『쑥쑥문고 10』



전에 오는 이야기

백두산에 얽힌 전설 모음.

금덩어리에 팔린 욕심쟁이

출판부 역음 김 4800원 176쪽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가장 높은 만큼 많은 전설을 지니고 있지요. 천지와 옥장천, 방학대에 얽힌 이야기를 아세요?
요즘도 할머니께서 백두산의 옛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자유롭게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통일을 위해 애쓰다면 곧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먼저 백두산에 가 보기로 해요.

우리교육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9-13
영업부 730-1273

학부모, 자녀 위한 6월 행사

알림

서울 강서남부지부

다양 그윽한 인사동에서 만남
시다

- 일시: 6월 18일 11:00
- 장소: '학교종이 땡땡땡'
(인사동 인사갤러리
골목 수도약국 앞)
- 문의: 736-1965
(학교종이 땡땡땡)
642-8707 (조은경)

서울 관동강남지부

우리 아이 논술지도 내손으로
(조무하)

- 일시: 6월 19일, 26일 (2회)
- 장소: 방배동 청소년학회
- 문의: 0342-703-8933

서울 동북부지부

교육법에 보장된 학생, 학부모
의 권리

- 일시: 6월 21일 오후 7:30
- 장소: 상계주공 4단지 노인정
- 문의: 930-6933
939-6857

PET 후속모임

- 일시: 6월 10일 10:00
- 장소: 용문 엘리트학원
- 문의: 977-4206
933-2657

서울 중서부지부

월레모임-북한산 등반

- 일시: 6월 20일 10:00
- 장소: 구기터널입구 자하문
호텔 버스정류장
- 문의: 387-9747 (정경자)
386-7631 (김정숙)

인천지부

21세기를 대비한 학교교육과
자녀교육-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을 중심으로 (오성숙)

- 일시: 6월 10일 10:30
- 장소: 부평4동 성당
- 문의: 032-525-8342

학부모, 지역위원과의 간담회

- 일시: 6월 13일 10:00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 032-525-8342

학교운영위 이렇게 꾸려갑시다

- 일시: 미정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 032-464-3169

익산지부

토요 어린이 교실-학부모와 함
께하는 합라도교실

- 일시: 6월 15일 1:30
- 장소: 신동성당 앞
- 회비: 어른 10,000
어린이 5,000
- 문의: 0653-834-0347
0653-52-0812

여천지부

- 일시: 6월 5일 10:00

꽃꽂이를 배워봅시다
6월 12일 10:00
글쓰기교실 (이화영)
6월 19일 10:00
학부모 신문 읽기
6월 26일 10:00
이웃돌보기-사회복지사
설이나 장애인단체

- 장소: 열린 교실
- 문의: 0662-84-5116

마창지부

사랑의 수학교실

- 일시: 6월 3일부터 3개월
매주 월, 수 2:00 (예정)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회비: 30,000
- 문의: 0551-45-0341

울산지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사
위원을 위한 강연회

- 일시: 6월 14일 오후 7:00
- 장소: 울산성당 교육관 (예정)
- 대상: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및
관심있는 일반 학부모
- 문의: 0522-92-8053-4

부산지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대상 교육강좌

- 일시: 6월 15일 오후 2:00
- 장소: 부산일보 대강당
- 내용: 21세기 학교교육과 학
교운영위원회
(정영홍 교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와 실제 (이광호 교사)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사례 (민혜숙)

서울, 경인지역 학부모위원
간담회-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 일시: 6월 10일 10:00
• 장소: 당산동 사무실
• 문의: 634-6508 / 675-9068

익산지부가 이사했어요
익산시 영등동 710-5 (2층)
전화: 0653-834-0347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책

옛이야기 보따리

도서출판 보리/서정오 글



다.

군더더기나 복잡한 설명 없
이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현실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황
당한 내용 속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 결과가
흔히 짐작되지만 끝까지 눈을
떨 수 없는 이야기, 바로 이
런 것이 전래 동화의 매력이
며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러 종
류의 어린
이 책이
있지만 전
래 동화만
큼 아이들
의 사랑을
받는 것도
없을 것이

어린이들에게 전래 동화는 책
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
어 주기도 한다.

많은 전래 동화 중에서도
'옛이야기 보따리' 시리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서정
오남만의 깨끗하고 구수한 입
말로 쓰여진 글에 민화풍의
삽화가 어울려 이야기 맛을
더하는 책이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책을 그대로 읽어
주어도 입말이 살아나 할머니
에게서 들던 옛날 이야기의
정감이 느껴질 것이다.

올 12월까지 10권의 책으로
나올 '옛이야기 보따리'는 현
재 '두꺼비 신랑' '곰지 댓
발 주둥이 댓 발' '메주도사'
라는 제목으로 세권이 발행되
었다. <송주비 기자>

◇학교운영위원회 비디오

새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운영에 대한 내
용의 비디오가 제작되었다. 의사 다큐멘터
리 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용과 구
성,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준다.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학부모 위원이나
교사 위원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 있는 교사, 학부모들이
한 번은 꼭 보아야 할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는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판매하고 있다.

- 가격: 20,000원
- 문의: 634-6508, 675-9068



고양지역 학부모 강좌

날 짜	주 제
6월 3일 (월)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
6월 10일 (월)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 공부
6월 17일 (월)	올바른 미디어 교육과 TV 시청 교육
6월 24일 (월)	신나는 글쓰기 지도
7월 1일 (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운영

- 일 시: 6월 3일~7월 1일 매주 월요일 10시 30분~12시 30분
- 장 소: 일산 신도시 E마트 문화센터 (4층)
- 참가비: 10,000원 (5회)
- 문 의: 02-634-6508, 0344-62-3517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산하어린이> 통신 판매
전화 한 통으로 <산하어린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

이오덕·권정생·위기철·신경림·이현주·윤기현·지동환·강정규·이재복·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
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새로 나온 책

산하어린이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띠에 얽힌 공금증과 재미난 이야기를 한데
엮어 놓은 열두동물 열두 가지 이야기.
흥미진진 공부도 만점.

산하어린이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국보'책. 박물관마다 보물같은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마다 박물관이 하나씩.

▶생필품이야기

- 10 물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차돌이는 환경박사 김민아
-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하는 왜 해야 하는 교실 어린이
- 34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불학교육연구소
- 35 날마다 쓰는 아이 어린이 불학교육연구소
- 41 너도말 교실 윤태규
-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현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81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화정책
-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최정숙

▶과학이야기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정영
- 62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약학이야기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성
- 3 4 5 임궏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현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용기
-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경민
-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운정
-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운정
-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허완·김재복

▶인물이야기

- 7 전태일 위기철
- 33 운동주 양진규
- 49 신재호 김서경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장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9 해바라기의 눈물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 14 비와 바보 박상규
-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딸꼬마, 이상권

- 20 하루나리 하루왕 이준현
- 21 삼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 23 키다리 동선 장수 아저씨 유재홍·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석
- 25 화초리와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 30 섬마을 아이들 신충현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작고도 값비싼 큰코 다치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창자의 매주풍 이재복
-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풀뽕장수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늑대남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 69 노랑길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6 흰둥이와 검둥이 이오덕·권정생 외
- 79 불귀신 아버지 김학철 외
- 80 오얏꽃을 낳은 편지 권선자 외
- 82 비를 부르는 소년 김운배
- 84 동글이와 땡글이 홍윤희

89 허루살이 미술실이 장문석

▶옛날이야기

- 36 민요기행 신경림
- 68 일찍이 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균
- 74 칠색구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상식
- ▶옛날이야기
- 27 아기 장수 조호성
- 75 깨비 깨비 침도깨비 김종태
- 77 백두산 산삼과 매신아 이야기 동내
- 78 천지와 돌바늘 이야기 동내
- 87 일만이천봉 이야기 고개 이야기 동내
- 89 허루살이 미술실이 장문석

출판산하

121-012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 10